

지역 소식통

부안군, 인재육성 상생협력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사장 권익현)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청연과 함께 부안군 인재육성에 대한 뜻을 같이하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남해화학 부안지점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청연으로 새롭게 거듭난 최선자 대표는 "부안군 인재육성재단의 반값 등록금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역의 인재육성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과 힘을 합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장학금 기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봉덕 공공실버주택

29일까지 예비입주자 모집

부안군은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봉덕 공공실버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부안봉덕에 조성된 공공실버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총 80세대(26㎡)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이며 1층에는 입주자 복지서비스를 위한 복지관과 2층부터 10층까지는 주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모집은 추후 공개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공공실버주택 1층 접수처에서 현장접수로만 진행할 예정이며 무주택·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8일 예비입주자 32세대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1년 1월 11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로 1순위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2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생태관광지역 추진

## 고인돌·운곡습지, 환경부 6년차 평가서 재 지정 국비 보조 및 온·오프라인 홍보, 컨설팅 등 지원

고창군의 고인돌과 운곡습지가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재 지정됐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는 환경부에서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으로 3년마다 생태관광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거쳐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은 2014년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3년차 재지정에 이어 6년차 평가에서도 우수

한 성적으로 재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환경부 생태관광지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으로 3개 영역에서 23개 항목으로 평가됐다.

특히 고인돌·운곡습지는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적 편익 창출과 영향 모니터링 부분에서 우수한 사례로 평가됐다.

6년차 생태관광지 재 지정 기준 70점

을 무난히 넘긴 87점으로 제5차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대상 14개소(지정 6년차 5개소, 지정 3년차 6개소, 개선 필요 3개소) 중에서 상위권 점수를 기록하며 재 지정됐다.

따라서 고창군은 고인돌·운곡습지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국비 보조 및 온·오프라인 홍보, 컨설팅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창군청 김수동 생태환경과장은 "올해도 다양한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인돌·운곡습지의 우수한 생물다양성을 알리고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소득창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한 고품질 만감류 '레드향'은 '홍예향', '천혜향'은 '천년향'으로 이름을 붙여 본격 수확한다

## 정읍시, '사랑의 온도탑' 이웃사랑 저력 뽐내

### 31일까지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캠페인 추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맞았지만, 정읍시에 어려운 이웃을 향한 기부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읍시는 이웃돕기 모금실적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이 역대 최단기간에 목표치를 훌쩍 넘어선 208°C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까지 모금된 금액은 총 7억4천100여만 원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200% 이상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둬 정읍시민들의 땀과 열정을 이웃사랑의 저력을 뽐냈다.

시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2일간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

건으로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 1%인 355만 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나눔 온도가 1°C씩 올라간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 성금 모금 기간을 단축하고, 목표도 지난해 대비 90% 수준인 3억5천5백만원으로 잡았다.

이 같은 모금실적은 성숙된 시민의식과 기업·기관·기부'가 큰 역할을 했다.

대진대학교가 1억원의 성금을 쾌척했고 태인컨트리클럽이 5천만원, 익명을 요구한 이웃이 2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덕천초, 정우초, 내장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생 창업 활동과 바자회

로 모은 성금을 저금통에 담아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 달라며 온정을 보내기도 했다.

또 정읍시청 전 공직자들은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아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사랑의 온도를 올리는 데 힘을 보탤다. 모금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 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이웃, 취약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이게 된다.

유진섭 시장은 "연말연시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과 사랑을 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이웃사랑의 온도가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홍예향 '본격 출하'

### 당도 13브릭스 이상·고품질 만감류 소득작물로 각광

아열대 작물이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면서 정읍지역에서도 당도 높고 품질이 우수한 고품질 만감류가 새 소득작물로 각광 받고 있다.

시는 정읍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홍예향(레드향)의 수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만감류는 한라봉과 레드향으로 감귤과 오렌지 품종을 교배해 만든 아열대 작물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온에 민감해 겨울 추위가 심한 내륙지역에서 재배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정읍시에는 2013년부터 만감류를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목으로 시험 연구해 농가에 보급해 왔으며, 현재 33개 농가에서 10ha를 재배하고 있다.

두 품종은 레드향과 천혜향, 한라봉으로 전복 생산 만감류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레드향'은 '홍예향', '천혜향'은 '천년향'으로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만감류의 주 수확 시기는 12월 ~ 2월로 온주밀감에 비해 특유

의 맛과 향기가 있고 저장 기간이 길어 인기가 높다. 또,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성분을 많이 함유해 혈액순환과 감기 예방에 탁월하며 피부미용 등에 좋다. 그중 홍예향(레드향)은 한라봉과 귤을 교배한 것으로 일반 귤보다 크기가 크고 납작하며, 잘 익으면 붉은빛이 도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과실 표피가 얇고 매끄러우며 신맛과 단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평균 당도는 13브릭스 이상으로 맛과 외형, 품질이 뛰어난 품종으로 꼽힌다.

만감류 재배 농가는 "제주도 감귤류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품질 좋은 만감류 개발에 더 매진할 것"이라며 "맛과 향이 좋은 정읍지역 만감류의 적극적인 소비와 실명절 선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고품질 과실 재배를 위한 토양과 당산도 관리 등 재배 시설 개선과 스마트팜 등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시설 감자 피해농가 현장점검

권익현 부안군수는 11일 시설하우스 감자 병해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농가의 고충을 청취했다.

부안에서는 지난 8~9일 기온이 영하 17°C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감자 약 44ha가 병해피해를 입었다.

부안감자는 지난해 총 142ha에서 110억원의 소득을 올려 동진면과 계화면 농가의 주 소득원이었지만 이번 병해 피해면적이 전체 면적의 31%를 차지해 막대한 농가피해가 예상된다.



권익현 군수는 "난방기 등을 점검해 시설감자 병해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달라"며 "피해농가에 대

## 정읍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정읍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8,244건에 대해 4억4,43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관리되는 지방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사

업자를 대상으로 1~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 16일부터 2. 1일까지다. 납부 기간이 경과 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